

종교성 약한 불교학 '문제'

종교문화학, '불교학 형성과 오리엔탈리즘' 주제 심포지엄

'불교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모든 불교학자가 안고 있는 고민이다. 단적인 예로 불교를 학적으로 접근하다보면 신앙으로서의 의미가 반감되고 신앙으로서의 측면만 강조하다보면 학문적 가치는 퇴색하기 쉽다. 이같은 딜레마 속에서 오늘날의 불교학을 접목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종교문화연구소(소장 박규태)는 2005년 상반기 정기 심포지엄 '불교학 형성과 오리엔탈리즘'을 6월 25일 서울 출판문화관에서 개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논문은 이만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의 '서구 불교학의 창안과 오리엔탈리즘'과 심재관 강릉대 강사의 '한국불교학 속의 서양불교학의 위상' 이 이사는 불교학의 종교성 회복을, 심재관씨는 불교학과 전통불교와의 상보적 조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이사는 "불교가 동양에서 2500여 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지만, 서구가 이를 새로이 발견하고 창안한 것은 300여 년에 불과하며 그런 연구의 역사 속에서 불교학의 특성이 규정됐다"고 말하며 서구 불교학이 안고 있는 오리엔탈리즘적 한계를 부각시켰다.

이 이사는 대표적인 초기 불교학 연구자로, 서구 불교학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르느프(Eugene Burnouf, 1801~1851)에게서 이 같은 한계를 발견한다. 부르느프는 <인도불교사 입문(1844)> <법화경 역주(1852)> 등을 펴낸 인물.

부르느프는 '부처님의 역사적 실재성 분석' '경·율·론·經·律·論에 따른 불



이만용씨



심재관씨

이만용씨 "불교 현장 배제... 문헌학 중심으로 흘러"

심재관씨 "객관주의적 서구 불교학 이식, 전통 상실"

전 분류' '역대 불전 주석가의 해석에 대한 관심' 등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삼으면서도, 불교 현장을 철저하게 배제했다. 후대의 서구 불교학자들은 부르느프의 방법론을 답습했고, 서구불교학의 경향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 같은 언어·문헌학 중심의 서구 불교학에서는 문화적 형태로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역동적인 종교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불교 연구가 제국주의적 필요성에 따라 이뤄졌고, 서구 종교적 배경 하에서 단지 호기심의 대상

으로서 다루었다는 데 있다고 이 이사는 설명했다.

이 이사는 "이처럼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 불교를 바라보는 오리엔탈리즘적 자세를 극복해야 한다"며 "종교성을 회복하는 것이 불교학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심재관 강릉대 강사의 서구불교학에 대한 인식도 이 이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한국불교학의 문제는 문헌학적 객관주의에 입각한 서구 불교학이 이식되면서 종교성을 상실, 불교와 불교학이 이질적인 것으로 분리됐다는 데

다. 그 결과 "불교학은 연구영역이 축소되고, 불교는 지성적인 전통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지적이다. 전통 교육기관인 강원 기능은 현저하게 위축되고, 아직까지 자기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

심씨는 "불교학의 서양학문 종속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의 불교학이 한국의 불교현실과 유리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불교학 연구자들의 경향까지도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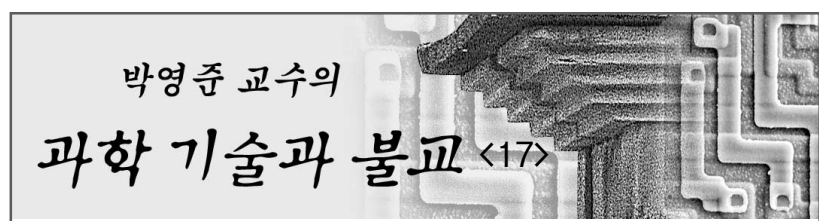
그는 한국의 불교학 연구 성향을 문헌학·실용학·체계불학으로 구분했다. '문헌학'적 경향은 텍스트 내의 개념분석이나 철학사상을 불교원전비평이나 문법적 분석을 통해 탐구하는 형식을 뜻한다. 심씨는 "유럽과 일본에서 유학한 이들이 문헌학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한국의 불교현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실용학적 연구자들은 사회적 제문제에 대응하려는 경향이 강한다. 대부분 국내에서 연구과정을 거친 이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심씨는 설명했다. 심씨는 여기에 동국대 고영섭·김종욱 교수, 중앙승가대 김용철, 순천대 인옥선 교수 등을 포함시켰다.

또 '체계불학'에 대해서는 "서양의 문헌학 중심의 불교연구가 가져오는 전통과의 단절, 신앙행위를 전복시키는 이론의 등장, 학문과 종교의 분리 등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아직은 연구경향으로 정립되지는 못한 하나의 대안적 불교학"으로 규정하며 김성철 동국대 교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심씨는 "불교연구가 사회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다보면, 연구자와 수행자, 신자들을 아우르는 통일적 이해의 구심점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불교연구가 전통불교, 살아있는 불교전통과 상보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17>

유희

1960년대에 청춘을 보낸 사람들이라면, 미국의 가수 Brothers Four를 기억할 것이다. 특히 이들을 통해서 유명해진 피터 시거즈의 노래 '꽃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는 한국에서도 많이 유행한 노래다. 가사는 '꽃들을 젊은 처녀들에게로, 처녀는 사나이에게로, 사나이는 모두 전장으로, 그리고 무덤으로, 그 무덤은 다시 꽃들로'라고 적고 있다. 반전과 평화를 갈망한 노래라고 보이지만, 유희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눈치 챌 수 있다.

유희야말로 불교 역사상 가장 많은 논란거리를 불러일으킨 개념일 것이다.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인 '무아', 즉 나라는 본질이 없다는데 도대체 유희는 어느 것이 한단 말인가?

주체가 없는 유희라는 개념에 대한

현대과학은 유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성냥이 불에 타는 것은 성냥을 이루는 탄소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해서 에너지(열)를 내고, 탄산가스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성냥에 불을 붙여주는 행위는 이 현상이 빠르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일로 볼 수 있다.

화학에서 이러한 현상을 '촉매작용'이라고 한다. 가만히 있어도 반응은 일어나지만, 느끼지 못할 만큼 서서히 일어나므로 속히 반응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촉매의 역할이다. 생명에서는 단백질이 촉매작용을 담당한다. 생물이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배우자를 좋아하는 것,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 좋아하는 뇌의 신경화학적 작용 역시 신경 전달물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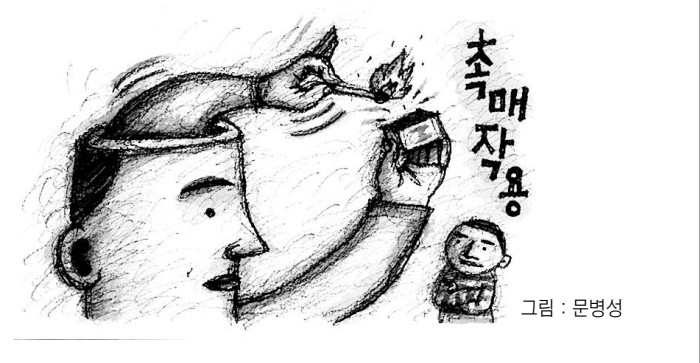
번뇌는 수억겁 생의 결과로 생긴 뇌의 작용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DNA 반응 달라져

밀란다다왕의 집요한 질문에 대해서 나가세나 존자는 식사를 위해서 등불을 들고 집 꼭대기 방에 올라갔다. 지붕을 태우고, 집과 마을 전체를 태운 사건을 들어 비유하고 있다. 비록 불이 식사를 위한 불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 마을을 태운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불이라는 인연이 등불에서 집과 마을로 옮겨간 것과 마찬가지로 유희는 이러한 모습으로 다음 생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가세나 존자는 "대왕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죽음과 함께 끝나고 현재의 명칭과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명칭과 다르기는 하지만, 두 번째의 것은 첫 번째로부터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악업으로부터 벗어나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단백질이 담당하고 있다. 단백질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이 생명을 이루고 있는 핵 속에 한결같이 존재하는 DNA이고, 이 DNA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므로, 결국은 부모에게서 촉매 현상의 방법(즉, 불을 붙이는 방법을 물려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의 과학은 놀랍게도 현재 나의 행동이 거꾸로 이 DNA의 발현하는 모습을 바꾸어 준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이유 없이 번뇌가 일어날 때, 수억겁의 결과로 생긴 나의 뇌에서의 촉매 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자. 그리고 어떻게 업을 닦는가에 따라서 나의 세포 모습 또한 다른 모습으로 다음 생으로 유전한다는 과학이 부처님의 말씀에 그대로 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서산마애삼존불 보호각 부분철거

문화재청, 지붕만 남기기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서산마애삼존불(국보 제34호) 보호각(1974년 건립·사진)이 지붕만 남기고 철거된다.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위원장 안희준)는 6월 23일 위원회를 열고 불상보존 및 관람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논란 끝에 보호각의 부분철거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보호각으로 인해 통풍과 자연채광이 안 돼 곰팡이가 피는 등 불상이 훼손되며, 관람에도 크게 방해된다"고 보고 보호각의 통풍을 개선한 상태에서 변화상태를 조사해 개선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보호각 전면 철거를 염두에 뒀으나, 보호각의 지붕을 철거하면 산성비를 직접 맞게 돼 훼손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지붕은 남겨두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몇 년 동안 보호각 해체를 주장해온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서산마애삼존불의 아름다운 미소를 볼 수 있게 됐다"고 반기며 "보호각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산마애삼존불 보호각과 함께 안건이 됐던 경주 배리삼존불보호각은 일단 존속시키되, 주변의 답장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배리삼존불은 보호각으로 통풍이 안돼 녹조류가 피고, 송화나무가 고쳐지는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배병선 실장은 "문화재 보존도 중요하지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며 "보존환경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보호각을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해 관람 여건을 최대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보호각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가을 심포지엄을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익순 기자



패불조사보고서 3집 발간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병근)는 <전국사찰소장 패불조사보고서 제3집>을 최근 발간했다.

제3집에는 산청 읍곡사, 청도 적전사, 영주 부석사 등 경상남·북도 11개 사찰에 소장된 11점의 패불이 수록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패불의 안료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가 수록됐다. 안료의 성분을 파악함으로써 조선시대 불화의 보존관리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확보됐다.

패불을 보관하는 제(櫃)에 대한 연구 결과가 수록된 점도 이번 보고서의 특징이다. 제에 대한 연구는 처음 시도된 것으로, 제에 적혀 있는 작자와 제작연대를 통해 한국 전통 목가구 양식의 변천을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움직이는 禪의 승결 템플스테이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

골굴사·선무도 대금강문에서는 청소년 및 일반인을 위한 선무도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절제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태해지기 쉬운 방학생활이나 휴가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 대안교육의 새 지평'이란 평가를 받은 선무도의 수련을 통해 평소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며 화랑의 호연정기를 맛보으로써 건강하며 활기찬 삶, 화합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삶을 배워 익힐 수 있습니다. 주말과 휴가를 이용한 일반인 템플스테이는 년 중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 제 : 하계 - 7월 ~ 8월 (2달간) ▶ 모집 인원 : 수시모집 (1주, 2주, 한달) ▶ 대상 : 초등학교생 이상 개인 및 단체

* 동참금은 청소년-1일 2만, 한달 60만원, 성인-1일 3만, 1개월 65만원이오니 아래 계좌로 송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를 하셨더라도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확정이 안되오니 미리 해당계좌로 입금바랍니다.

농협 721107-52-037300 (예금주 : 설기춘 골굴사)

수련내용

1. 안반수의 수행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불교학문, 전통문화(판소리, 활쏘기, 다도)
2. 기림사, 감은사지, 정황사지, 동해 문무대왕릉 등의 성지순례
3. 주지스님의 초발심지경문과 부모은중경 강의를 통해 심성경화 및 한문공부
4. 매일 영여 회화를 원어(외국인 행사)도 지도합니다. (해의 연수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 지도진 : 스님·사범 등 10명, 판소리강사 1명, 다도강사 2명, 영어강사 1명

* 준비물 : 개인 세면도구·필기도구·우산·운동화·운동복 등

* 접수 및 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홈페이지 : www.sunmudo.com

일 과 표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4시	기상, 예불	13시	독서와 사색
5시	좌선	14시	오후수련(학생)
6시	조깅, 등산	15시	전통문화 강습(학생)
7시	아침 공양(발우 공양)	16시	율력 (도량정소 및 정비작업)
8시30분	불교 강의	18시	저녁 공양
9시	오전 선무도 수련	19시	예불, 자율학습 및 참회복(학생)
11시	108배 참회기도, 자아를 향한 서원	19시30분	저녁수련(일반인)
12시	점심 공양	21시	점호 및 취침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 선무도 대금강문·선무도 대학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 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함장

청동불 40여분 전시 중
www.sh-buddha.co.kr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정빌딩 1층